



ESG 대출 글로벌 최우수 은행 · 단기투자상품 글로벌 최우수 은행

세계가 인정한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APRIL 2025 Vol.241

CEO REPORT

MONTHLY CEO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기업
주식회사 안앤락 오세용 대표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APRIL 2025 Vol.241



CEO Report 웹진

발행일 2025년 4월 1일 통권 241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서경란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461

기획 IBK경제연구소

※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SPECIAL REPORT

- 02 **THEME**
바이오산업
- 04 **SPECIAL ①**
바이오산업의 혁신 키워드
‘빅파마 M&A, 생물보안법, AI 혁신’
- 08 **SPECIAL ②**
국내 바이오 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
美 시장 교두보 삼아 신흥국 개척 힘써야
- 12 **TABLE TALK**
바이오 中企의 글로벌 시장 생존 활로
“정부 지원 활용, 현지 기업과 협력”



ECONOMY

- 18 **MONTHLY CEO**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기업
주식회사 안앤락 오세용 대표
- 24 **START-UP**
(주)잇그린, 새솔테크(주), (주)브레인벤처스,
(주)모빌위더스, (주)아이콘엑스
- 28 **MARKETING**
고물가 시대, 듀프 소비가 트렌드
- 32 **TAX**
임원의 퇴직급여 세무
- 34 **IBK EXPLORING**
IBK기업은행-독일 코메르츠뱅크
업무협약
- 36 **GLOBAL ECONOMY**
지금 세계는:
- 38 **INDUSTRY TREND**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CULTURE

- 40 **LAW**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 42 **MOVIE**
영화 <머니볼>
숫자 너머의 스토리:
데이터와 직관의 균형을 이루다
- 44 **ESSAY**
좋은 죽음에 대하여,
쇼펜하우어 그리고 니체
- 46 **WORK OUT**
지친 눈, 피로 풀기 위해서는
- 48 **IBK SUPPORT**
One-Point 경영컨설팅
‘수출 도전’ 실시 안내



바이오산업

BIOTECH BUSINESS

02

THEME
바이오산업

04

SPECIAL ①
바이오산업의 혁신 키워드
‘빅파마 M&A, 생물보안법, AI 혁신’

08

SPECIAL ②
국내 바이오 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
美 시장 교두보 삼아 신흥국 개척 힘써야

12

TABLE TALK
바이오 中企의 글로벌 시장 생존 활로
“정부 지원 활용, 현지 기업과 협력”

AI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와 의료, 과학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이 바이오테크 분야에도 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2025년 1월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가 이를 입증한다. 2025년 바이오산업 시장 환경과 투자 트렌드를 바탕으로 K-바이오 시대를 향해 나아갈 우리 기업의 전략을 모색해 본다.

글. 남승수

바이오산업의 혁신 키워드 ‘빅파마 M&A, 생물보안법, AI 혁신’

2025년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혁신과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업과 투자자들이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활발한 투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이 이뤄진 JP 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이하 JPM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동향을 바탕으로 2025년 바이오산업의 주요 트렌드와 시사점을 정리한다.

Profile. 남승수

- 삼일PwC파트너, 공인회계사
- 해외IPO팀
-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전문가

글로벌 빅파마의 M&A 주도

이번 JPM 콘퍼런스에서 존슨앤드존슨의 인트라-셀룰러 테라피스 인수와 같은 주요 뉴스가 발표되며 2025년 M&A 시장의 호기로운 시작을 알렸다. 2025 JPM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주요 계약들을 살펴보면 고형암 및 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글로벌 빅파마)이 보유한 특허들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은 M&A를 활발하게 진행할 강력한 유인이 된다. 수년 동안 글로벌 빅파마는 잠재력이 있는 바이오테크 및 자산을 인수하는 볼트온(Bolt-on) 전략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채워나갔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PM 콘퍼런스에서는 대형 M&A뿐 아니라 소규모 거래도 강조됐다. 바이오·헬스케어의 혁신과 성장에 M&A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중소형 거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잠재력을 갖춘 한국 바이오 기업도 글로벌 M&A 환경에서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정부와 생물보안법

2025 JPM 콘퍼런스에서는 트럼프 정부 2기의 정책 방향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여실히 드러났다. 새로운 행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술개발 장려 및 M&A 촉진 등 긍정적인 방향의 논의가 주를 이뤘다. 무엇보다 바이오시큐어 법안(Biosecure Act), 즉 생물보안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바이오산업 보호와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바이오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고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우시애펙트,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바이오테크를 직접적으로 명시해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한 중국은 2025년 3월에 미국 일루미나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기 중국 수출 금지를 공고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생물보안법 및 미국과 중국 간 바이오 패권 경쟁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의 규제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는 대체 공

2025 JPM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주요 계약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거래 유형	최대 거래 금액 (단위: 억 달러)	인수 기술
Johnson & Johnson	Intra-Cellular Therapies	인수	146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Eli Lilly	Scorpion Therapeutics' cancer program	인수	25	유방암 치료제
Gilead	Leo	파트너십	17	염증성 질환 치료제
GSK	IDRX biotech	인수	11.5	고형암 치료제
AbbVie	Simcere Zaiming	파트너십	10.5 이상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Biogen	Sage	인수	4.7	신경계 질환 치료제

자료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

급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미국 글로벌 CDMO 업체들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이전 및 노하우를 통한 공동 연구개발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다. 미국 내 중국 기업을 대체할 기회뿐 아니라 중국 시장 내에서의 추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산업의 전략과 노력은 물론 정부 차원의 시기적절한 지원 및 실리적인 외교 전략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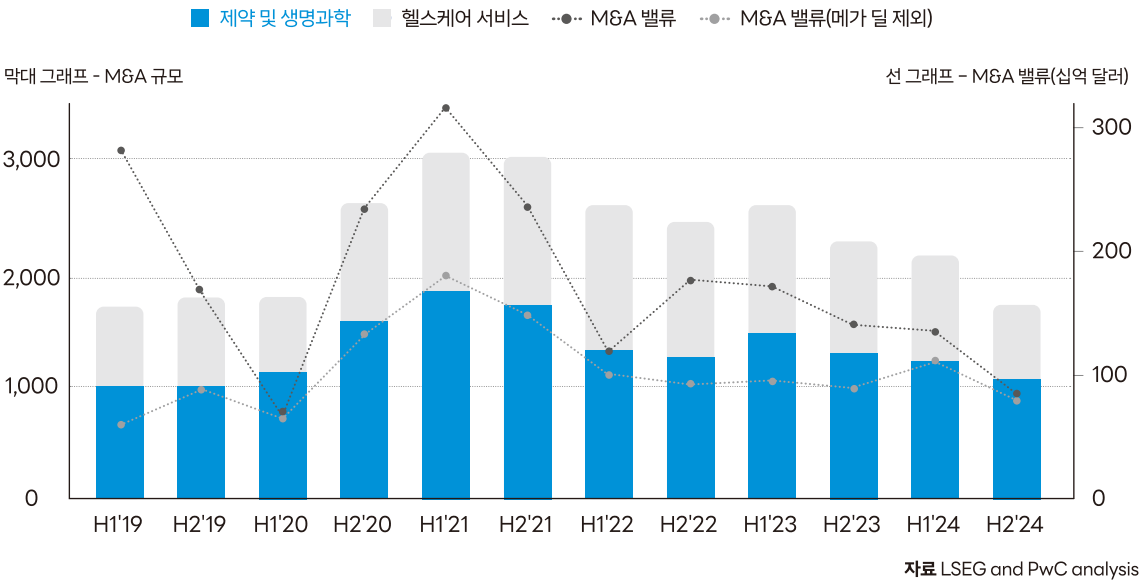
항체-약물 접합체 및 비만치료제의 부상

항체-약물 접합체(ADC) 및 비만치료제(GLP-1)는 JPM 콘퍼런스에서 다뤄진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ADC는 ‘암을 잡는 유도탄’으로 불리며 항체(Antibody)와 강력한 세포 사멸 기능을 갖는 약물을 결합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혁신적인 차세대 치료 기술이다. 기존의 화학요법에 비해 높은 효능을 보이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잠재

력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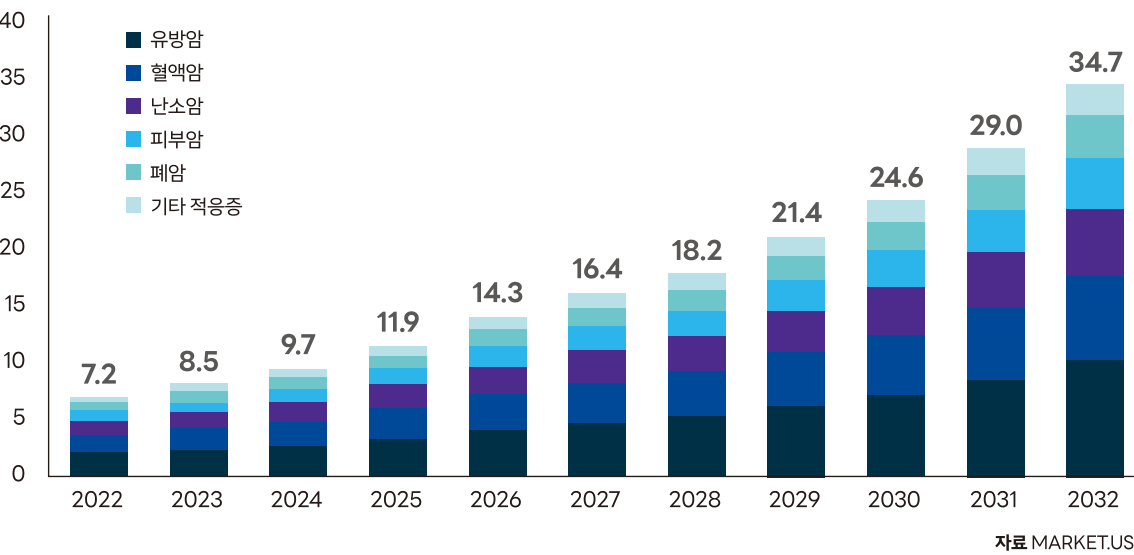
ADC 시장은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스콜피온 테라퓨틱스를 인수하며 ADC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GSK 또한 ADC 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트렌드는 ADC의 효능 및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암의 주요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만치료제, 특히 GLP-1 기반의 치료제도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23년 67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4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많은 제약사가 GLP-1 기반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는 경구용 GLP-1 및 기타 비만 치료제의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비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M&A 규모 및 가치 (2019~2024년)



글로벌 ADC 시장

규모, 적응증별, 2022~2023년 (십억 USD)



AI 및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

AI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JPM 콘퍼런스에서도 AI 기반의 신약 개발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와 여러 제약회사가 협력해 AI 기술을 적용한 신약 후보물질 탐색 및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길리어드는 AI 파트너십을 통해 약물 개발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M&A 관점에서는 AI 및 디지털 자산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 인수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AI, 디지털 및 IT 기반의 헬스/메드 테크,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헬스케어 분석과 같은 분야의 기업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이를 M&A 전략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적극 파악하고 자사의 포트폴리오 개발 및 투자 전략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파트너링 및 기술의 수출,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바이오 콘퍼런스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기회를 타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우수하고 잠재력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투자, M&A 정책금융 활성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같은 글로벌 정책 변화에 대비한 외교 전략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분명히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기회가 있다. 한국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이 동향을 잘 파악하고 기회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성장 스토리를 이어가길 기대한다.

국내 바이오 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 美 시장 교두보 삼아 신흥국 개척 힘써야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2023년 매출 규모가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최근 5년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바이오산업 역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알아본다.

Profile. 이현우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혁신본부장
- 전 주보스턴 부총영사,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
- 외무고시 30회(외교부 경력 25년)



바이오와 글로벌 패권 경쟁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바이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주요국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비만 치료제, 유전자 편집(CRISPR), 항체약물접합체(ADC), 오가노이드 등 혁신적 치료법이 등장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바이오산업은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및 리쇼어링 정책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유럽연합(EU)은 제약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각종 개혁 법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14차 5개년 바이오 경제 발전 계획’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글로벌 기술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정도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세가 예상롭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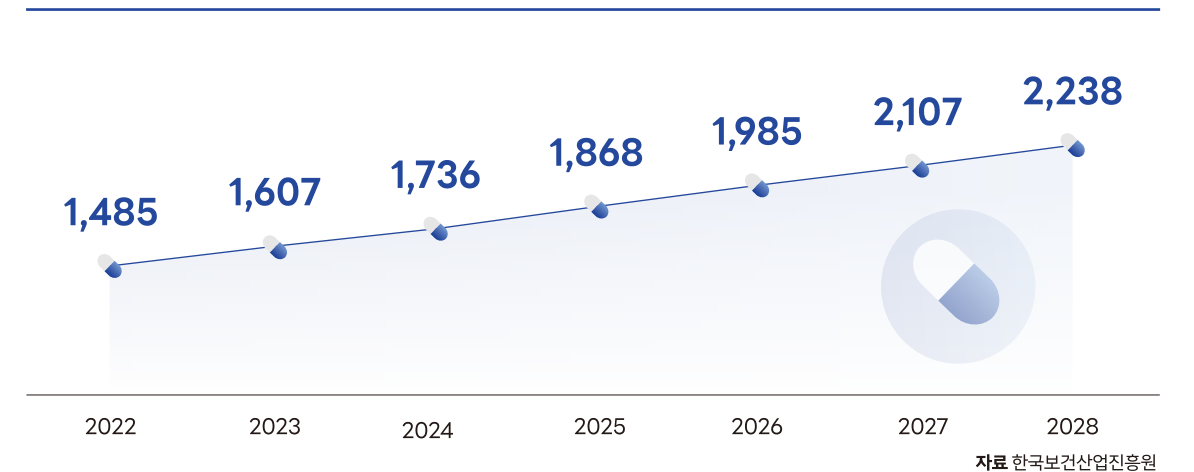
현재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1조6,000억 달러(약 2,240조 원)이며 2028년에는 2조2,400억 달러

(약 3,0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도체(6,500억 달러)와 자동차(3,600억 달러) 시장을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크다. 각국이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글로벌 50대 제약사에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한국의 글로벌 제약 시장점유율은 1.7%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가 한 수 아래로 생각하는 인도의 제약사 선파마(Sun Pharma)는 FDA 승인 의약품 수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제약사 테바(Teva)는 글로벌 제네릭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한 결과다. 다행히 최근 한국 제약·바이오산업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했으며 신약 파이프라인 개수는 3,233개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 등 혁신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삼성·LG·롯데·현대 등 대기업들의 바이오산업 투자도 늘고 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10억 달러





©BDA/동아

글로벌 공략의 디딤돌, 미국

한국 제약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내수시장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국내 10대 광고주 중 3분의 2가 제약기업이었지만 이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동안 제약 산업은 40~50년을 제자리 걸음 했다.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특히 미국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FDA 승인은 글로벌 시장 확장의 초석이 된다. 그러나 현재 FDA 승인을 받은 국산 의약품은 30여 개에 불과하며 미국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기록한 사례도 제한적이다. 인허가 비용, 복잡한 유통·보험 체계, 높은 규제 장벽이 주요 장애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80일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는 퍼스트 제네릭, FDA의 쇼티지 품목을 공략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FDA 승인 의약품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글로벌 M&A 전략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확보하면 이를 레퍼런스로 삼아 신흥국 시장에서도 규제 장벽을 낮출 수 있다. 미국을 교두보로 삼아 글로벌 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 어떻게 공략해야 하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픈 이노베이션과 신흥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기술 제휴를 통한 경쟁력 확보도 필수적이다. 한국 기업들은 바이오 USA, CPHI 등 글로벌 전시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화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바이오 USA 및 CPHI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수가 미국, 영국에 이어 2~3위를 차지할 정도다. 또한 글로벌 넘버원 클러스터인 보스턴의 개방형 사무소인 CIC(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에 한국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스위스 바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아세안, 중남미 등 파머징(Pharmerging) 시장도 한국 기업이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한국

이 WLA(WHO-Listed Authority)로 등재됐지만 여전히 개별 국가에서 참조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흥국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GMP MRA(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제 조달 시장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 연방 정부와 UN 관련 국제기구의 의약품 조달 시장은 연간 수십조 원 규모지만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1% 미만이다. FDA 승인 의약품을 보유한 기업들은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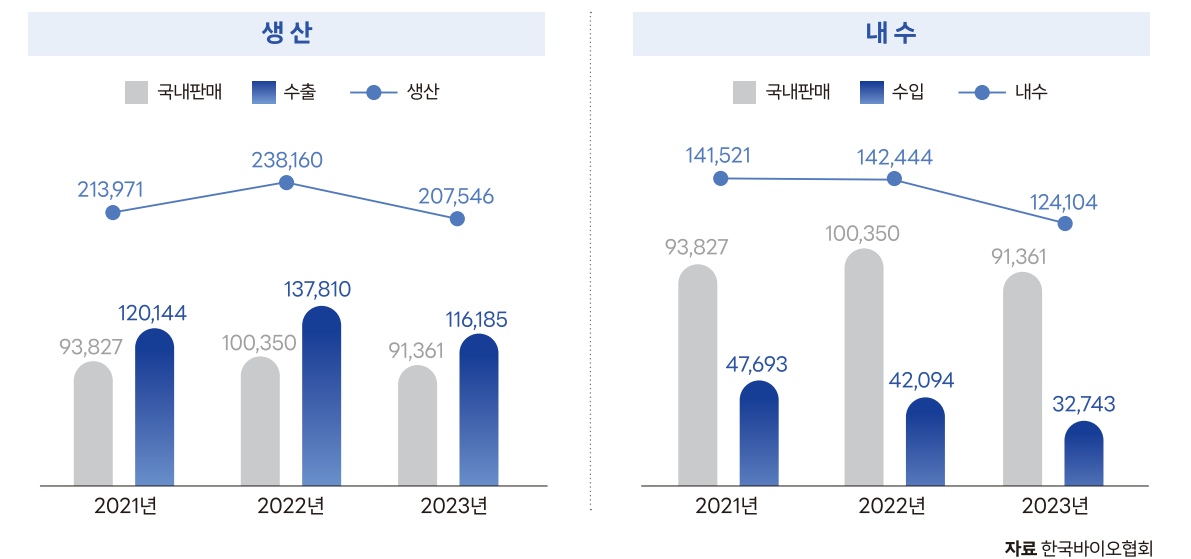
둘째,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별 규제가 복잡하고 정책 변화가 빠른 분야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초당적으로 추진된 생물보안법(Bio Secure Act)은 기업들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통상 및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제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협회, 연구기관,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코리아 원팀(One Korea)' 전략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바이오 유럽에서 협회와 한국거래소, 코트라 등이 공동으로 코리안 나이트를 개최해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에게 한국 시장과 제약바이오산업을 알린 것처럼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글로벌 브랜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한 분야다. 각자도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국내 시장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K-파마(Pharma) 성공 시대를 위해 글로벌로 전력 질주해야 할 때다. 한국의 제약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처럼 글로벌 파워 하우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 당사자가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바이오산업 생산 및 내수 변화 추이 (2021~2023년)

단위: 억 원



바이오 中企의 글로벌 시장 생존 활로 “정부 지원 활용, 현지 기업과 협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의 제약바이오 공급망 재편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중국 간판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미국 활동에 제재가 예상된다.

전문가 3인이 제언하는 글로벌 바이오 전쟁 속 한국 기업의 전략을 나눈다.



황용식 진행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윤희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선임연구위원



남진우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김윤진

동아비즈니스리뷰
기자

좌담 내용은 좌장 및 패널의 개인 의견이며 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바이오산업 투자 트렌드를 예상한다면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과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는가.

남진우 AI와 바이오의 융합을 주요 키워드로 꼽는다. 특히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AI 기술을 임상실험 설계 및 약물 개발에 적극 도입하는 가운데 이는 신약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 역시 AI 및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겠다. 정부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AI 신약 개발, AI 기반 바이오 제조 전략 등 AI 바이오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사업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맞춰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선도하는 게 좋겠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제조 1.0’ 신규 예비타당성 사업을 준비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해 2027년까지 바이오벤처 기술 수출 3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해야 한다.

김윤진 후기 임상 단계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캐피털(VC) 및 글로벌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낮고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며 특히 임상 2상 이상의 강력한 데이터를 보유한 바이오 기업에 주목할 것이다. 명확한 임상 및 규제 경로를 갖춘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2020~2024년 동안 임상 2상 단계 기업들이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효능과 안정성이 검증되고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 조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 중심의 투자 전략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실행력을 증명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스토리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윤희 전 세계에 불고 있는 AI 열풍은 바이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뿐 아니라 퀀텀 컴퓨팅에 이르는 혁신적인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추세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경쟁 환경에 대응해야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은 연구개발 효율성과 성공률을 높이

“
국내 기업 역시 AI 및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겠다. 정부가 AI 바이오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사업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맞춰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선도하는 게 좋겠다.”



기 위한 혁신 경쟁력을 보유해야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산업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남진우 우선 글로벌 무역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의약품에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등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및 재고 이전 등의 전략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 신속히 필요하다. 또한 미국 등 주요 시장에 현지 생산 시설을 설립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면서도 첨단 바이오 제조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해야겠다.

김윤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최근 JP 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부상이 주목받았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 VC들이 중국과의 거래를 회피하면서 대체 투자처로 한국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활용해야 한다. 초기 파이프라인 단계에서부터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강점을 찾아야 한다. 중국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혁신 바이오테크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 신뢰성,

“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추세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경쟁 환경에 대응해야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데이터 품질, 글로벌 파트너십 역량에서 강점이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미국 및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미국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한국 VC들과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보스턴 등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에 적극 진출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ADC 후보물질과 같은 유망한 바이오 자산을 빠르게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국내 VC들과 협력해 유망한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빅파마 및 바이오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잘 알려진 대형 바이오 기업들은 빅파마의 타깃이 돼 경쟁이 심화됐지만 아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바이오 기업들은 빅파마와 미국 VC들이 접근하기 좋은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을 활용해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license-out), 공동 개발, 투자 유치 등의 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윤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바이오 산업은 기본적으로 국가 우선주의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큰 분야다. 따라서 한국 바이오 기업이 바이오의약품 등 혁신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이미 각국 시장에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자 충성도가 높다는 시장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바이오제품 특성상 각국의 시장별 인허가 규제가 보수적일 뿐 아니라 의사 등 수요자 인식도 매우 보수적이며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시장 충성도가 높기 때문이다.

바이오산업에도 AI 등의 첨단기술이 접목되는 추세다. 한국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김윤진 중소 바이오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델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신약 개발의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가상 스크리닝, 약물 설계, 활성 예측 등 특정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슈뢰딩거의 CADD 솔루션,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모, 국내 스타트업 히츠의 하이퍼랩과 같은 플랫폼들은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제공하며 이들 기업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윤희 AI 기반 신약 개발, 정밀 의료, 유전체 분석 등 첨단기술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 즉 바이오데이터(정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이다. 하지만 한국의 바이오데이터 경쟁력은 양적·질적 양면에서 아직까지 취약하다. 따라서 한국 바이오 기업은 신약 후보 물질 DB 등 바이오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장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FDA, 유럽 EMA 등 주요 시장의 규제 장벽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남진우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펼쳐야겠다. 한국의 세포·유전자 치료제 기업들은 일본의 ‘쇼난 헬스 이노베이션파크’에 입주해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실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운영도 전략이다. 글로벌 바이오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설립한 헬스케어, 의료기기, 생명과학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 개발 및 마케팅 혁신을 지원하는 컨설팅 그룹이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인허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김윤진 글로벌 임상시험 전략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에서 경험이 풍부한 CRO(임상시험수탁기관)와 협력해 다국적 임상시험을 진행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유

한양행도 렉라자의 글로벌 임상을 위해 다국적 CRO와 협력해 진행했다. 이와 함께 FDA의 패스트트랙, 혁신치료제, 우선 검토 등의 신속 승인 제도를 활용하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최윤희 주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부합하는 신약 및 신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단계부터 진출 목표 시장의 규제 가이드 라인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품 인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 중심의 바이오산업에서 국내 중소 바이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은?

남진우 천연물 신약,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재생의료 등 대기업들이 주력하지 않는 소규모 바이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와 같은 신흥 바이오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모색해야겠다. 또한 해외 바이오 기업 및 연구소와의 협력 및 기술 이전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글로벌 CRO(임상시험수탁기관) 및 CDMO(위탁개발생산기업)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해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김윤진 바이오 전문 투자은행(IB) 및 M&A 특화 기관과 협력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센터뷰(Centerview)와 같은 바이오 M&A 전문 부티크 IB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글로벌 제약사 CEO 및 C레벨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유망한 바이오 기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 및 투자자들에게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홍보

중소 바이오 기업들은 바이오 전문 투자은행(IB) 및 M&A 특화 기관과 협력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 및 투자자들에게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러한 전문 IB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기 위해 이러한 전문 IB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윤희 글로벌 기업과 연계 협력하는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니치마켓 대상 제품 경쟁력이나 플랫폼 기술 등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등 바이오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진입해야 한다. 또한 중소 바이오 기업의 엑시트 전략은 기술 이전과 기업공개뿐 아니라 M&A와 합병까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시니어 토털 케어 플랫폼 기업
주식회사 안앤락

전문 매칭 케어로 모두가 즐거운 일상을



주식회사 안앤락 오세용 대표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불편하시진
않으셨나요?” 상황한 답 대신
‘순시미(SOONSEEME)’ 플랫폼을
실행시켜 본다. 국내 복지 및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주식회사
안앤락의 야심 찬 사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
더없이 필요한 플랫폼이 등장했다.

제조·유통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

모든 사업에는 ‘시작’이 존재하지만 욕심, 마음
이 크게 앞서 ‘용두사미’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
역시 다반사다. 하지만 주식회사 안앤락은 달랐
다. 황정에 대표(COO)의 아버지는 요실금 팬티를
구매하기 위해 일본을 몇 번씩이나 방문했다. 이
는 비단 아버지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
고 우리나라 노년층의 ‘말 못할 비밀’을 해결해 드
리고자 요실금 팬티를 개발·제작한 것이 주식회
사 안앤락의 시작이다. ‘아버지’에서 확장해 ‘누군
가’를 위한 진심은 제품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제
대로 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원단 개발에 심혈
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주식회사 안앤락의 제조
공법은 특허로도 등록됐다. 2016년 4월 18일 창
립 이후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타이틀을
차지하게 된 주식회사 안앤락은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

험 복지용구에 요실금 팬티 3종을 품목으로 등록
한 것에서 큰 힘을 얻은 결과다. 요실금 팬티 3종
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복지용 제품도 같이 주문
한 것이 성장의 배경이 됐다. 주식회사 안앤락은
요실금 팬티 외에도 손목·무릎 보호대, 안전손잡
이, 실내외용 경사로, 성인용 보행기, 배회감지기,
수동 휠체어 등 헬스케어 제품의 제조와 유통을
기반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었다.

주식회사 안앤락이 업계에서 입지를 단단히 하
던 2018~2020년, 오세용 대표(CEO)는 주식회사
안앤락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문으로
활동했다. 당시 지방 사립대학교에서 교수직 생
활을 하던 오세용 대표는 인구 연령 비율의 변화
를 실감하면서 시니어 산업에 관심을 두게 됐고
소속 대학에서 추진하던 고령친화사업에도 적극
적으로 참여했다. 그렇게 오세용 대표는 주식회
사 안앤락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됐고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 론칭을 준비하면서 2024년





66

많은 시니어가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요양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99

대표이사직을 맡게 됐다. 오프라인 기반이었던 영업 회사에서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이미 2016년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했고 우리나라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대두되면서 시니어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지 한참이었다.

주식회사 안앤락은 2016년에 이미 관련 제품 개발 및 유통 산업에 뛰어들어 빠르게 변하는 시대와 시장의 요구(Needs)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놓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용구 제품뿐만 아니라 음식과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많은 시니어가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요양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오세용 대표는 재가요양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재가요양은 돌봄, 그리고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의 최적 매칭이 중요함을 깨닫게 됐다. 주식회사 안앤락의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순시미(SOONSEEME)’는 그렇게 탄생했다.

시대를 읽는 발 빠른 행보

2024년 12월 23일, 대한민국은 ‘노인의 나라’가 됐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집계돼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1,286명의 20%를 넘어서며 유럽연합(EU)의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시니어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발전의 필요성을 체감했어요.” 주식회사 안앤락은 문제 인식에서 멈추지 않고 오세용 대표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점차 커지고 있는 시니어 산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렇게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인 순시미를 기획했고 2023년 10월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됐다.

순시미는 방문요양과 프리미엄 간병, 복지용구, 헬스케어를 플랫폼으로 통합한 국내 최초의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이다. ‘좋은 분만 딱’이라는 슬로건만으로도 알 수 있듯 전문 케어 매니저가 다양한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벼운 일상 지원부터 정서적 교류, 병원 동행 및 단기 돌봄, 만성질환 관리, 치매 케어 등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실시간으로 돌봄 일지를 확인하고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의 상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시니어들에게는 물론 순시미를 통한 전문 케어 매니저에게 부모님의 돌봄을 의뢰한 보호자들의 높은 만족도까지 책임지고 있다. 케어 매니저와 보호자, 피보호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해 돌봄 과정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다. 특히 ‘재가복지의 중요성 인식’에서 출발한 플랫폼답게 순시미는 현재까지 30여개의 제휴점과 가맹점(헛릿 단위) 계약을 성사시켰다. 앞으로 더 많은 제휴점과 계약을 맺고 가맹점까지 설립해 우리나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케어 제공자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주식회사 안앤락의 목표이기도 하다.

주식회사 안앤락은 2025년 1월 세계 비즈니스

업계가 주목하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가해 순시미를 공개했다. CES는 전 세계 기업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모여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공신력 있는 자리다. 전 세계 4,8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CES 2025는 주식회사 안앤락이 순시미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 글로벌 투자사와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일본, 유럽 등 인구 오너스 시대에 접어든 이 시대에 국내외 투자자들은 주식회사 안앤락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순시미’가 미국 한인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은 것에 크게 주목하고 있어요. 순시미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정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현재 플랫폼 버전은 국내에서만 작동할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두고 각 국가의 정책에 맞게 응용할 수 있도록 연구와 개발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에요.” 주식회사 안앤





락은 국내에서 성공적인 론칭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준비에도 힘쓰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맞춤형 시니어 케어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며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해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한다.

휴머니튜드 실현을 통한 돌봄의 새로운 표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만 50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돌봄의 부담을 느끼는 보호자가 전체 설문 대상자 중 76%를 차지했다. 우리 사회에서 막연한 불안이 된 ‘돌봄’을 주식회사 안앤락이 AI 기반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 순시미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돌봄 전반의 품질을 높이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초고령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순시미, 그리고 주식회사 안앤락의 비전입니다.” 오세용 대표가 단언했다. 주식회사 안앤락이 이뤄온 성과들이 그 단언을 뒷받침한다. 서울 은수일반산업단지에서 국내 요실금 팬티 시장을 선도하고 각종 복지용구 제조 및 유통 사업을 펼치며 이노비즈 기업 인증,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다수의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이뤘다. 그리고 2025년 주식회사 안앤락은 ‘곧 만날 우리의 인연이 필연’이라는 의미를 담은 ‘순시미(SOONSEEME)’ 그 이름처럼 모든 시니어를 위한 매칭 케어 서비스로 다시 한번 도약에 나섰다. 특히 주식회사 안앤락은 시니어를 위한 매칭 케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휴머니튜드 실현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정기 보수 프로그램 운영도 제공한다.

주식회사 안앤락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순시미 카페’도 운영한다. 일반 카페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순시미 카페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 시니어와 요양보호사, 보호자들의 소통과 교류를 돕는 공간으로 장기요양보험 및 케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場)을 수행한다. 시니어와 보호자는 순시미 카페에서 플랫폼 순시미를 경험할 수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주식회사 안앤락은 단순히 제조 및 유통, 플랫폼 개발에만 사업을 제한하지 않고 시니어 케어 산업의 핵심 인력인 케어 매니저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 쉽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의 시니어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다. 



©주식회사 안앤락

START-UP

IBK 창공 육성기업

(주)잇그린 • 새솔테크(주) • (주)브레인벤처스 • (주)모빌위더스 • (주)아이콘엑스

itgreen

배달 앱 연동부터 세척까지 가능한 다회용기 서비스

(주)잇그린 김선 대표

- ◎ 주요 기술 배달 앱을 통한 다회용기 서비스 제공
- ◎ 주요 제품 리턴잇 서비스
- ◎ 홈페이지 www.returnit.kr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 배달 시 사용하는 일회용 용기다. 주식회사 잇그린(Itgreen)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회용기 서비스 플랫폼인 ‘리턴잇(Return It)’을 제공한다. ‘리턴잇’은 배달 앱과 연계해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하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서비스로 표준화된 전용 다회용기와 배달 가방, 자체 반납 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리턴잇은 국내 유일의 배달 앱을 통한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로 현재 주요 배달 앱과 연동된 다회용기 주문·반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전담 인력과 생활물류 서비스를 연결한 자체 물류망을 구축해 최적화된 회

수 동선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7단계 세척 프로세스를 갖춘 직영 세척센터를 운영해 위생적인 다회용기 사용을 보장한다. 소비자와 기업이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세척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잇그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배달 앱에서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성을 달성했다. 잇그린의 다회용기 서비스는 배달 앱뿐만 아니라 사무실, 축제, 영화관, 경기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8월 잠실 야구장, 2023년 5월 수원 KT야구장에 다회용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2023년 9월에는 일회용품 감량 우수사업자로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친환경 경영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2024년 1월에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 경영의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잇그린의 누적 회원 수는 10만 명에 달하며 연간 주문 수는 400% 상승할 만큼 잇그린의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는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잇그린은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다회용기 사용 분야를 확대해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SRESOL TECH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보안 솔루션 개발

새솔테크(주) 한준혁 대표

- ◎ 주요 기술 V2X 통신보안 솔루션
- ◎ 주요 제품 V2X 보안 플랫폼, PKI 기반 보안 인증 서버, 모빌리티 시험/인증 장비
- ◎ 홈페이지 www.saesol.tech

새솔테크(주)는 자율주행차 및 모빌리티를 위한 보안 인증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 보안 전 영역의 기술을 보유해 완전 자율주행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한다. 차량과 모든 사물 간의 통신(V2X) 기술은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 실시간으로 주변 차량 및 인프라와 정보를 주고받아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이 해킹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교통사고 및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새솔테크(주)는 V2X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확대하고 사고를 예방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모빌리티 환경을 만든다. 새솔테크(주)는 설립 6개월 만에 국제 보안 규격을 기반으로 한 V2X 보안 인증서 발행과 단말 탑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LG전자로부터 초기 지분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LG전자와 협력해 차세대 V2X 보안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면서 자율주행차 보안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새솔테크(주)는 V2X 보안 인증 체계 규격인 ‘IEEE1609.2.1’의 국제 시험 규격 제정 과정을 주도하며 글로벌 자율주행 보안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새솔테크(주)는 자율주행 시대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차량 통신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와 협력해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조사, 이동통신사, 국내외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보안 솔루션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한 자율주행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적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새솔테크(주)는 보안 및 임베디드 분야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글로벌 자율주행 보안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이어가며 다양한 경험과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주)잇그린
김선 대표

새솔테크(주)
한준혁 대표



멀티모달 AI로 웹툰 현지화 품질 향상

(주)브레인벤처스 김원희 대표

- ◎ 주요 기술 멀티모달 AI를 활용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모델
- ◎ 주요 제품 AI 기반 웹툰 번역 및 자동화 학습 기술
- ◎ 홈페이지 www.brainventur.com

멀티모달(Multimodal)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주)브레인벤처스는 멀티모달 AI를 활용한 웹툰 현지화 SaaS 기반의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웹툰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과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는 여러 솔루션을 제공한다. 웹툰의 텍스트 추출, 이미지 인식, 번역 및 자동 식자 서비스를 통해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자연스러운 현지화 작업을 지원한다. 웹툰의 대사, 그림, 분위기까지 반영해 품질 높은 번역 또한 가능하다. 웹툰 현지화 SaaS는 텍스트를 추출하고 번역된 내용을 자동 삽입하며, 식자 작업까지 자동으로 처리해 빠르고 정확한 웹툰 제작이 가능하다. 이는 웹툰 제작자와 출판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독자들에게는 문화적 이질감이 없는 웹툰 경험을 제공한다. (주)브레인벤처스는 웹툰 산업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아시아, 유럽, 북미 등 다양한 국가에 맞춘 현지화 서비스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멀티모달 AI 기술을 활용해 웹툰 현지화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향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까지 다룰 수 있는 멀티모달 AI 솔루션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글로벌 독자들에게는 문화적 이질감이 없는 웹툰 경험을 제공한다.

(주)브레인벤처스는 웹툰 산업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아시아, 유럽, 북미 등 다양한 국가에 맞춘 현지화 서비스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MOBILWITHUS

복잡한 보안 요구 사항에 맞춘 통합 보안 솔루션

(주)모빌위더스 박한나 대표

- ◎ 주요 기술 개발 환경 통합형 임베디드 보안 솔루션
- ◎ 주요 제품 반도체 기반 암호 모듈 및 보안 소프트웨어
- ◎ 홈페이지 www.mobilwithus.com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보안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및 반도체 제조사는 사이버 보안 경험이 부족하고, 복잡한 보안 요구 사항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모빌위더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사와 부품사가 복잡한 보안 요구 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 통합형 임베디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Mobility With Us’라는 의미인 (주)모빌위더스는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지향한다. (주)모빌위더스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반도체 효율을 극대화하고, 부품 원가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 ‘모빌셰르파+(MOBIL SHERPA+)' 시리즈를 개발해 제공한다. 또한 양자내성암호를 비롯한 글로벌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한 ‘모빌크립토+(MOBIL CRYPTO+)'와 함께 전자제어 시스템부터 자율주행 서비스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하드웨어 보안 모듈 및 반도체에 대한 기

술력은 긴밀한 임베디드 개발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차 전자제어 시스템 및 보안 기술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선행 및 양산 자동차 개발 내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기술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고객들과 파트너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주)모빌위더스는 다년간의 양산 및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동차 전자제어 시스템 개발자, 임베디드 및 암호 전문 보안 개발자로 구성된 최정예 팀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는 다양한 개발환경을 가지는 임베디드 환경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자동차 부품 내 소프트웨어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기도 하다. 임베디드 기반의 경험과 노하우는 비단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비슷한 환경인 로봇, 철도, 항공, 우주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기술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플랫폼의 요구에 맞게 수치화하면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플리팅’은 플릿*의 상태와 차나 기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데이터화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플랫폼으로, ‘자동차 업계의 팔란티어(Palatr)’를 목표로 한다. 플리팅은 운전패턴/실내 청결도/정비상태/잔존가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진단/평가, 품질 개선 제안, 플릿 관리 대행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리팅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확보 및 사업성 검증을 위해 국내 자동차 제조사 및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와 기술협력 및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렌터카 등 대형 플릿 사업자들과 공동 실증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플릿: 서비스나 사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자동차

iconx
Identify | connect | experience

모빌리티·플릿 사업자를 위한 AI 서비스 플랫폼

(주)아이콘엑스 최원석 대표

- ◎ 주요 기술 서비스 품질의 AI Scoring & Coaching
- ◎ 주요 제품 AI 서비스 플랫폼 플리팅(Fleeting)
- ◎ 홈페이지 www.iconx.co.kr

(주)아이콘엑스는 택시·렌터카·중고차 매매 등 자동차로 사업하는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AI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의 가치는 ‘확산 단계’와 ‘수익화 단계’의 구분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하지만 자동차는 데이터의 사각지대로 플랫폼이 서비스 품질 파악이나 수준별 가격 차등화가 어렵다. (주)아이콘엑스

(주)모빌위더스
박한나 대표

(주)브레인벤처스
김원희 대표

(주)아이콘엑스
최원석 대표



고물가 시대, 듀프 소비가 트렌드

최근 저성장 고물가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고가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듀프(Dupe)' 제품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듀프 소비는 단순히 저렴한 대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Profile. 이선미

- (주)티비에이치글로벌 차장
- <영포티, X세대가 돌아온다>
<마케터의 글쓰기> 등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스마트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듀프 소비가 자연스럽게 확산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발전도 이러한 트렌드를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중심으로 '#○○○듀프' 해시태그가 확산하면서 다양한 브랜드의 대체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

'듀프(Dupe)'는 'Duplicate(복제하다)'에서 유래한 단어로 고가 브랜드 제품과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의미한다. 이는 정품을 모방한 '짝퉁'과는 다른 개념으로 특정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과 기능을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뜻한다. 듀프 소비는 명품의 퀄리티를 선호하면서도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는 듀프 소비

듀프 소비 트렌드는 뷰티, 패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뷰티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저렴이'로 불리는 고가 브랜드의 대체품들이 속속 등장하며 가장 먼저 듀프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 왔다. 브랜드 나스(NARS)의 블러셔 '오르가즘'은 색감과 발색력이 뛰어나지만 높은 가격대에 판매되는 반면 브랜드 밀크터치(Milk Touch)의 블러셔는 유사한 색감을 제공하면서도 가격이 훨씬 저렴해 대체재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자연스러운 색감과 촉촉한 발림성으로 사랑받는 브랜드 디올(Dior) 립글로우의 듀프 제품으로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브랜드 페리페라(Peripera) '잉크 무드 글로이 밤'이 유사한 효과를 제공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패션 아이템에서도 듀프 제품이 강세를 보인다. 브랜드 샤넬(Chanel)의 클래식 플랩백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지만 브랜드 찰스앤키스(Charles & Keith)의 쉐딩 숄더백은 유사한 디자인과

'듀프 소비' 언급량 및 긍부정률



자료 KPR 인사이트 트리

실루엣을 제공하면서도 훨씬 경제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또한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Rolux)의 서브마리너 모델은 뛰어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추고 있지만 브랜드 세이코(Seiko)의 다이버 시계가 유사한 스타일과 기능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도 듀프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 강력한 흡입력과 무선 디자인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다이슨(Dyson)의 V10 청소기 대체품으로는 브랜드 샤오미(Xiaomi)의 미지아 핸디스틱 청소기가 주로 거론된다. 또한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는 애플(Apple)의 에어팟 프로가 대표적이지만 BNS의 i17 PRO MAX가 유사한 디자인과 노이즈 캔슬링을 제공하면서도 훨씬 저렴한 가격과 올리브영 등 접근성 높은 유통망을 기반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듀프 소비가 다양한 산업에서 확산하며 합리적인 가격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듀프 소비,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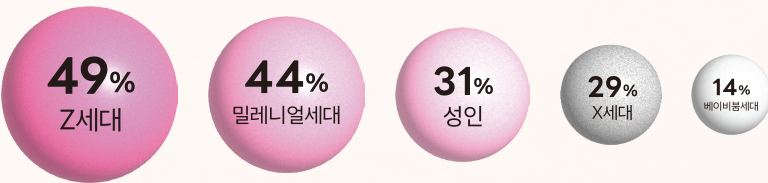
듀프 소비 트렌드는 중저가 브랜드와 원조 브랜드 모두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한다. 어느 쪽이든 기업들은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 중저가 브랜드의 성장 전략이다. 중저가 브랜드가 단순히 ‘저렴한 대체재’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품질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고가 브랜드 못지않은 디자인과 성능을 제공하는 제품에 더욱 관심 갖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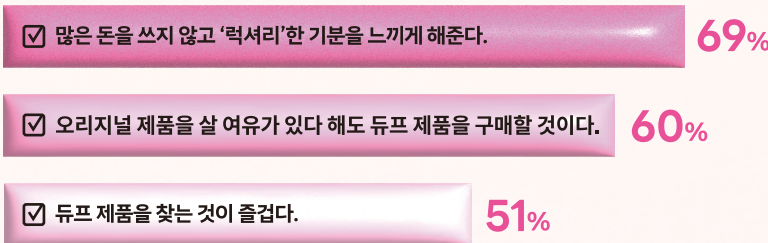


시대별 듀프 소비

복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한 적이 있나요?



MZ세대 소비자는 듀프 제품 구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료 미국 시장조사업체 모닝컨설팅 (2023. 10.)

또한 SNS 마케팅과 인플루언서 협업을 적극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SNS를 통해 제품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면 가격뿐만 아니라 브랜드 철학과 윤리적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층까지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조 브랜드의 대응 전략이다. 듀프 제품의 확산 속에서 원조 브랜드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제품의 품질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리미엄 서비스나 한정판 제품 출시, VIP를 위한 맞춤형 혜택 등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디자인 및 기술 특허를 적극적으

로 확보하고 유사 제품이 시장에 등장할 경우 법적 대응을 강화해 브랜드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 정책은 오히려 소비자들을 듀프 제품으로 이탈하게 만들 수 있다. 가격 전략을 재조정하거나 합리적인 가격대의 서브 브랜드를 출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조 브랜드는 프리미엄 이미지와 대중적인 접근성을 모두 갖춘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다.

듀프 소비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브랜드 충성도와 가성비를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변화된 인식을 보여준다. 향후 소비자들은 품질과 윤리적 소비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는 한 듀프 소비 트렌드는 더욱 확산하고 정교해질 것이다. 기업이 듀프 소비 트렌드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다.

임원의 퇴직급여 세무

임원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는 정관에 명시된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다.

*본 칼럼은 2025년 3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당한 퇴직급여 규정 중요

세법상 임원의 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

- 정관 또는 퇴직급여 규정에 명시된 지급 기준 준수
 - 법인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2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 정해진 규정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초과된 금액은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리돼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원에게 근로소득 과세된다.

2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계산식은 근속연수 및 퇴직 전 급여를 기반으로 한다.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①주주 또는 출자자나 ②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③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④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⑤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begin{array}{l} \text{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 \text{(2016년 12월 11일 ~ 2019년 12월 31일,} \\ \text{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 \\ \text{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end{array} \times \frac{1}{10} \times \frac{\text{2016년 12월 11일 ~}}{\text{2019년 12월 31일, 근무기간(월)}} \times 3$$

+

$$\begin{array}{l} \text{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 \text{(2020년 1월 1일 ~ 퇴직일까지의} \\ \text{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 \\ \text{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end{array} \times \frac{1}{10} \times \frac{\text{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월)}}{12} \times 2$$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관계

1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규정상 한도까지의 퇴직급여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해주고 초과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한다.

2 소득세법

- 퇴직금을 지급받은 임원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이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무조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한도인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10%×근속연수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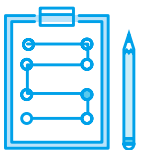


임원 퇴직소득 인정이 거절될 수 있는 사례

-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 퇴직 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 (즉, 실질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 퇴직금이 근속연수 및 직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가능)
- 대표이사에서 이사 또는 고문으로 직함만 바꾸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 정관이나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금 한도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초과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해당 임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퇴직금이 과도할 경우 근로소득 및 상여로 과세되거나 법인의 비용 인정이 부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업계 평균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게 설정한다.
- 퇴직금 지급 후에도 국세청 세무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증빙을 철저히 보관한다.



Profile. 백해진
- 신승회계법인 상무이사

IBK기업은행 × COMMERZBANK

IBK기업은행-독일 코메르츠뱅크 업무협약

중소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하여

IBK기업은행이 지난 3월 6일,
독일의 글로벌 유니버설 은행인
코메르츠뱅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잠재력이 큰 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 미래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튼튼한 기반 마련 약속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3월 6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코메르츠뱅크(Commerzbank AG, 회장 베티나 오를로프)와 양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B 사업 기회 공유 등 글로벌 사업 확장 ▲자금·무역금융·코레스 관련 업무 ▲스타트업·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 투자 ▲양국 진출 기업의 현지 금융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이 주요 내용이다.

IBK기업은행과 코메르츠뱅크의 이번 협력은 한국과 독일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IBK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메르츠뱅크는 독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무역금융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독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지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금번 기업은행과의 협력은 양국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BK기업은행은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축으로

Germany

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 리테일과 투자 등 모든 금융을 아우르는 유니버설 뱅크이다. IBK기업은행은 1961년 자본금 2억 원으로 시작해 독일로부터 차관을 받았던 작은 은행이었으나 이후 M&A 없이도 자산 500조 원, 국내외 700여 개 점포를 가진 글로벌 100대 은행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성장의 밑바탕에는 고객을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경제 위기 시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독일 코메르츠뱅크도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자국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 목표로 삼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IBK기업은행과 많이 닮았다”라는 말에 이어 “IBK기업은행과 독일 코메르츠뱅크의 이번 업무협약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국의 기업 지원 생태계를 연결하는 촉매제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2023년 프랑스 정책금융기관 Bpifrance, 2024년 핀란드 정책금융기관 Finnver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럽의 주요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IBK유럽 국제협력 벨트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MOU Signing Ceremony

Industrial Bank of Korea - Commerzbank AG

IBK Industrial Bank of Korea

2025

Frankfurt, Germany

COMMERZBANK

IBK 기업은행, 독일 코메르츠뱅크와 중기 지원 협약 독일 프랑크푸르트 코메르츠뱅크 타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마이클 코츠바우어 코메르츠뱅크 부회장(왼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도움

캐나다, 트럼프 관세 유예에 2단계 대미 보복 관세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상당 부분 1개월 유예하기로 하면서 캐나다도 당초 예고했던 2단계 보복 관세를 연기하기로 했다. 3월 6일(현지 시간) AF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무역협정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 발표 후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 원)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의 시행을 4월 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한 1단계 보복 관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클라우드 빅3 기업 '양자 칩' 공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빅3 기업에 속하는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MS)가 클라우드가 아닌 양자 시장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세 기업이 연달아 양자컴퓨터의 CPU(중앙처리장치)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인 양자 칩을 공개한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윌로(Willow)' 양자 칩 기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2월 '마요라나(Majorana)1', 아마존은 올해 2월 '오셀롯(Ocelot)'을 공개했다. 3개사는 양자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각자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양자컴퓨터 개발의 난제였던 양자 오류를 해소하면서 양용화 시기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국가 창업기금 설립



3월 5일 중국 정부가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열었다. 일정 가운데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첨단산업 창업을 지원하는 국가급 기금을 곧 설립한다고 전했다. 과학기술과 혁신 영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채권시장 내에 과학기술혁신 채권 전용 시장도 출범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을 더 우수하게, 더 강하게,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금의 기간은 20년으로 일반 투자 펀드보다 길다.



@shutterstock

3억9,600만^{유로}

에어프랑스-KLM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3억9,600만 유로(약 6,200억 원)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2억500만 유로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 승객 증가와 비용 절감 노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벤 스미스 에어프랑스-KLM 최고경영자(CEO)는 부유한 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이 같은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리는 럭셔리 브랜드와 연관성이 깊어 프리미엄 관광객 수요를 확보하는 데 강점이 있다"라며 "파리 패션위크 개막 이후 광적인 소비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5%

유럽중앙은행(ECB)이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ECB는 3월 6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기준금리를 연 2.90%에서 2.65%로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ECB는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0.9%, 내년은 1.4%에서 1.2%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ECB는 "올해와 내년 무역 정책 등 광범위한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비롯하는 수출 감소와 지속적인 투자 둔화를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shutterstock

일본 최대 노조, 임금 6% 인상 요구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레노) 산하 노조들이 올해 임금 협상에서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6%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일본의 인플레이션 추이와 올해 금리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시즈오카현에서 열린 금융경제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은행의 경제·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8만6,164^{달러}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잠시 급등했다가 추락해 8만6,000달러대로 내려왔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오전 9시28분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8%가량 하락한 8만6,16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급락과 함께 관련주들도 크게 떨어졌다. 당시의 지난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를 포함하는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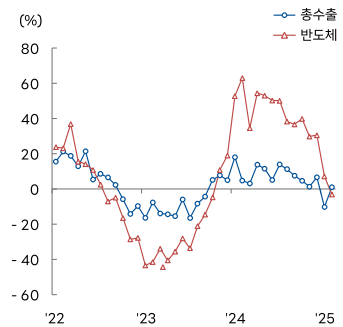
2만^명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이 고품질 학부 과정의 수용 규모를 확대하고 학부생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2만 명을 더 늘릴 계획이다. 한편 최근 중국 스타트업 모니카가 출시한 AI 모델 '마누스'가 오픈AI와 비교해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2의 딥시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마누스 접속을 위한 초대 코드는 현재 9만 위안(약 1,800만 원)에 거래된다고 알려졌다.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Korea

수출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관세청

반도체 수출,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했지만 '23.1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던 반도체 수출이 범용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감소(-3.0%) 전환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자동차 수출(17.8%)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고, 바이오의약품 수출(45.5%)도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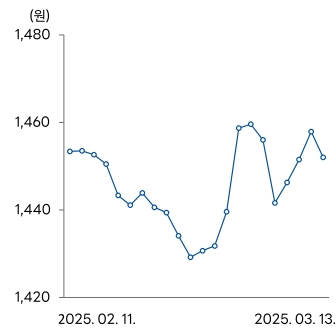
※ 2월 범용 메모리 가격 변동률(전동비, %):
(DDR4 8Gb) -25.0, (NAND 128Gb) -53.1

1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1월 산업생산은 제조업(-2.4%, 전월 대비)과 서비스업(-0.8%) 생산이 모두 감소했다. 내수 부문은 소매판매가 0.6% 감소했고, 설비투자(-14.2%)와 건설투자(-4.3%)도 모두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Exchange Rate

달러/원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최근 환율은 무역전쟁 우려로 급등락 반복 (2025.2.11.일 1,453.4원→2.25일 1,429.2원→3.13일 1,45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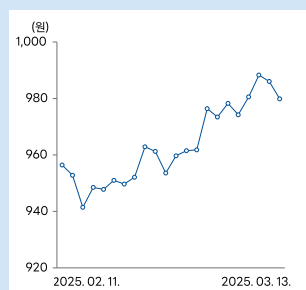
2월 말 환율은 미국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와 유로화,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두 달여 만에 1,420원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압박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양상을 보이고,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환율은 장중 20원 가까이 폭등했다. 이후 관세 부과시점이 연장되고 유로화 강세가 뚜렷해지면서 1,440원까지 하락했지만 위안화 절하 고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다시 1,450원대 후반으로 상승했다.

2025년 2분기 말 환율 전망은 1,458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5년 2분기 말 달러/원 환율 전망은 평균 1,458원으로 조사됐다. "1,470원 이상"으로 전망한 IB가 5개사로 가장 많았다.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25.2.20.~2025.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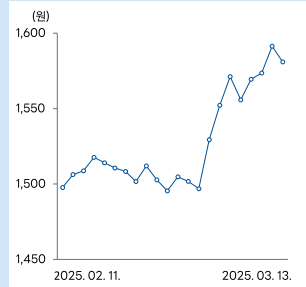
원/100엔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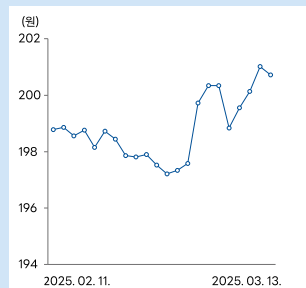
원/유로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위안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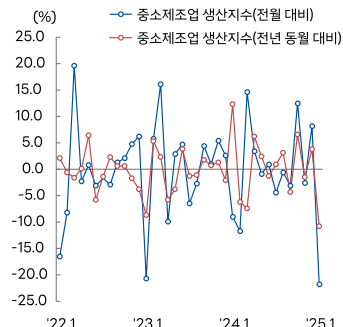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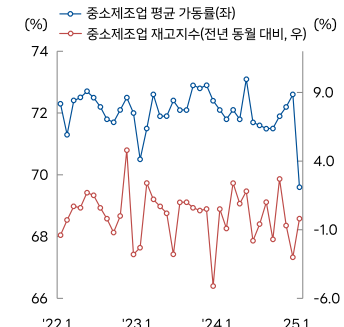
생산, 전월 대비 감소

'25년 1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는 21.8%,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8%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기타운송장비(2.8%), 의약품(2.1%), 음료(2.2%) 등에서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감소한 업종은 기계장비(-7.7%), 전자부품(-8.1%), 고무·플라스틱(-5.2%) 등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20.8%), 기계·장비수리(50.4%), 의약품(6.1%)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14.4%), 1차금속(-11.4%), 기계장비(-7.5%)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른 가중치 변경 및 연보정 반영으로 값 변경됨

*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감소

'25년 1월 중소제조업 전체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3%p 감소한 69.6%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소기업(5~49인)은 2.3%p포인트 감소한 66.2%, 중기업(50인~299인)은 3.7%p포인트 감소한 73.4%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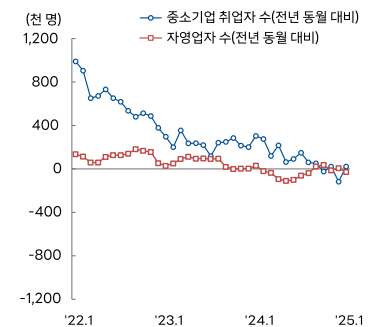
* 2023년 1월 조사부터 신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재고, 전월 대비 감소

'25년 1월 중소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2%p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석유정제(14.3%), 반도체(7.8%), 화학제품(3.1%)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기장비(-7.2%), 기계장비(-3.3%), 자동차(-1.6%)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자료 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5년 1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1천 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2만 2천 명이 증가했으며,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1천 명이 감소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469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25년 1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8천 명이 감소해 550만 명을 기록했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 오늘의 사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물류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팀 팀장입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도 믿기 힘든 일이 회사에서 발생해 여러모로 고민이 많아 노무사님께 상담을 신청합니다. 사건은 얼마 전 한 부서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당 부서의 과장급 직원이 사원급 직원들의 착용 의상을 언급하며 계속해서 불쾌한 성적 언급을 이어 나갔습니다. 급기야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언행으로 회식 분위기를 흐린 것은 물론이며 그 자리에서 다른 상사와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사원급 직원들은 모두 화를 내며 귀가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인 과장급 직원은 이를 후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 전입니다. 피해자인 사원급 직원들은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현재 휴가 중입니다. 사건 처리를 위해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했으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다른 직원들의 증언과 아주 짧게 녹화된 핸드폰 동영상만 통해 녹음된 가해자 직원의 짧은 몇 마디가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전문 노무사가
채택된 사연을 상담해드립니다.

✉️ dnc_sj05@naver.com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올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New message



From 윤형석 노무사

Subject Re: 노무사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보내주신 사안을 살펴보건대 가해자인 과장급 직원의 회식 자리에서의 언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은 크게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이 대표적인데 사안의 경우 언어적 성희롱으로 판단됩니다. 요컨대 가해자 과장급 직원의 언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함이 명백하므로 귀사는 피해자 사원급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 및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화된 핸드폰 동영상 및 녹음 자료, 진술서 △식당 CCTV 등 제반 자료 △가해자 과장급 직원의 제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자백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 과장급 직원에 대해 회사 취업 규칙에 의해 적절한 징계 절차(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를 거치고, 징계 양정(수단)을 통해 중징계할 수 있고, 가해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있는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당해 가해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남은 피해자 사원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요청 사항(유급 휴가 요청, 정신적 상담 등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요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전사적 차원에서의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통해 조 직문화를 한 차원 쇄신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

참고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인 예시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

구별 개념으로는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등이 있는데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말하며 이는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폭행'이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하며, '성추행'이란 성욕의 흥분·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구별하는 실익은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성폭행' '성추행' 등의 성범죄 행위는 '형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Reply

Forward

Cancel

글. 한명훈

영화 <머니볼>

숫자 너머의 스토리: 데이터와 직관의 균형을 이루다



개봉 2011. 11. 17.
장르 드라마
감독 베넷 밀러
출연 브래드 피트, 조나 힐,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 로빈 라이트

영화 <머니볼>에서 빌리 빈이 데이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승리의 공식을 만들었듯 기업도 데이터와 직관의 균형 속에서 더 나은 전략을 찾아야 한다. 숫자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통찰과 결단이다. 승리를 만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넘어선 전략과 사람을 향한 신뢰다. 당신의 기업은 어떤 승리를 설계할 것인가?

Profile. 한명훈

- 아테네학당 대표
- <엔택트 리더십 상영관> 등



©씨지브이

**“중요한 건 선수를 사들이는 게 아니고,
승리를 사들여야 해요.”**

- 피터 브랜드

그린 필드 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는 종종 회의실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머니볼>은 현대 비즈니스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를 스크린에 투영한다. 수치화할 수 있는 가치와 측정할 수 없는 가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그 경계에서 리더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모든 조직은 성과를 측정한다. 매출 그래프, 시장점유율, 성장률과 같은 숫자들은 마치 야구장의 전광판처럼 기업의 건강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필수적인 도구다. 그러나 <머니볼>의 첫 장면처럼 때로는 패배의 스코어보드 앞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승리의 순간이 있다. 숫자가 전부일까? 엑셀 시트에 담기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가치들은 어디에서 평가해야 할까?

숫자만으로 승리를 예측할 수 있을까?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단장 빌리 빈은 제한된 예산이라는 좁은 그라운드에서 강팀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뉴욕 양키스와의 3억 달러 차이. 이 압도적인 격차 앞에서 빌리 빈은 게임의 룰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빌리 빈과 스카우터들의 회의실 시퀀스다. 카메라는 테이블을 둘러싼 노련한 스카우터들의 얼굴을 빠르게 훑으며 야구에 대한 오랜 통념과 새로운 관점의 충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스윙이 예쁘지 않아”, “그의 여자 친구가 못생겼어”와 같은 주관적 평가가 난무하는 가운데 빌리 빈과 데이터 분석가 피터는 완전히 다른 렌즈로 선수들을 바라본다. 빌리와 피터는 선수들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진다.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가 아니라 출루율 높은 선수는 누구인가?” “화려한 플레이가 아닌 승리에 기여하는 숨겨진 가치는 무엇인가?” 빌리는 20연승의 기록적인 순간에도 숫자만으로 완벽한 팀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데이터는 강력한 도구지만 선수 개개인의 심리, 팀워크, 경기장에서의 순간적인 판단력은 여전히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

데이터와 감각의 균형: 혁신적 사고의 조건

많은 기업이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숫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성공적인 리더는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사람의 직관과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다. 데이터 기반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 숫자가 말하는 것을 듣되 숫자가 말하지 않는 것도 읽어라. 데이터는 과거의 패턴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한다. 혁신적인 리더는 데이터를 참고하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감

각을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 전통적인 방식과 새로운 접근법을 융합하라. 기존의 경험과 데이터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빌리 빈은 기존 스카우터들의 방식과 데이터 분석을 완전히 대립시키지 않는다. 그는 두 가지를 결합해 더 나은 전략을 만든다. 세 번째, 데이터가 말하는 ‘승리’의 정의를 재설정하라. 브랜드 가치, 조직문화, 고객 경험 등은 단순한 데이터로 측정하기 어렵다. 리더는 데이터가 말하지 않는 영역까지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진정한 혁신은 숫자 그 이상을 볼 때 시작된다.

숫자를 넘어 승리를 설계하라

“종이에서는 잘 보였지만 실전에서는 다른 이야기예요.” 진정한 전환점은 빌리가 데이터와 인간적 요소를 결합하기 시작할 때 왔다. 그는 데이터로 선발한 선수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 그들의 강점을 살리는 방법을 찾는다. 스코트 해티버그와의 대화는 특히 인상적이다. 빌리는 그에게 포수 대신 1루수로 포지션을 바꾸며 말한다. “이건 쉬운 일이에요. 당신에게 요구되는 건 공을 잡는 것뿐이에요.” 이 접근법은 서서히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오클랜드는 20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메이저리그 역사를 새로 쓴다. 이 성공은 단순히 데이터 분석의 승리가 아니라 데이터와 인간적 통찰력의 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데이터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너머의 스토리를 읽어내는 것은 리더의 몫이다. 숫자와 직관, 분석과 통찰력의 균형을 찾아낼 때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혁신적인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머니볼>이 현대 비즈니스 리더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

좋은 죽음에 대하여

쇼펜하우어 그리고 니체



염세주의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의외로 장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소한 70년을 살고 나서 100년도 더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의 전반기인 40년 동안은 경험을 쌓고, 30년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의 시간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인도의 <우파니샤드>의 견해에 따라 자연스런 인간의 수명을 100살로 보았다.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는 고통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 숨을 거두는 것을 호상이라고 하듯이 쇼펜하우어는 잘 늙어 힘이 빠져야 죽는 순간에도 큰 고통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체력이 저하되는 일은 죽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자연의 섭리다. 큰 병 없이 크게 숨 가빠하거나 경련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지나치게 애쓰지 말고 건강을 잃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최고의 행복은 부, 명예나 권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 큰 고통 없이 숨을 거두는 일이다. 나이가 들면 건강관리를 통해 젊어지려 애쓰지 말고 늙어가는 과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건강해서 너무 기력이 강하다면 죽을 때 마지막까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투 때문에 많은 고통이 따를 수 있다.

Profile. 강용수

-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원
-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니체 작품의 재구성> 등

@shutterstock

반면 니체는 너무 오래 살지 말 것을 당부한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란 무엇인가? 너무 오랫동안 살다가 늦게 죽는 사람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더러 너무 일찍 죽기도 한다. 인간은 언제 죽어야만 하는가? 차라투스트라는 “제때 죽도록 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선 제때 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제때 죽을 수 있겠는가? 제때 죽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제때 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차라투스트라가 원하는 죽음은 “내가 원하여 찾아오는 자유로운 죽음”이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자기완성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생이 완성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차라투스트라는 삶의 완성도를 과일에 빗대어 설명한다. 과일이 가장 잘 익었을 때는 맛이 좋다. 그러나 남에게 계속 맛을 보이는 일이 없어야 하며 너무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과숙(過熟)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과일은 신맛을 내는 시기에 일찍 늙어 버려서 제맛을 못 내고 썩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정신이 먼저 늙고 생애 실패한 자는 죽는 일에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조숙(早熟)도 원할 일이 아니다. 또한 늦은 나이에도 세상의 명성과 명예와 결별하지 못해 아직 나뭇가지에 매달려 버티고 있는 사람은 비열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삶에 대한 집착 또한 버려야 된다.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누리는 법과 대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웃는 법도 배워야 한다. 삶과 죽음의 이치를 잘 이해하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다. 잘 산 사람들만이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완전의 경지에 이른 것, 무르익은 모든 것은 죽기를 바란다. 그러나 설익은 것들은 하나같이 살아남기를 바라는데 서글픈 일이다.” 자신의 삶을 완성한 사람은 집착이나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죽음을 맞이한다. 📖

지친 눈, 피로 풀기 위해서는

사무실의 모니터부터 출퇴근을 비롯한 이동
과정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현대의 일상에서
가장 피로한 신체 부위를 꼽자면 단연코 눈이겠다.
많은 정보를 읽어내는 눈에 잠시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자.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세상이 하얗게 보였다. 분명 안방 수납장 위에 TV와 벽시계가 보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게 하얗게 보이니 순간 당황스러웠다. 꿈인가 싶었지만 현실이었다. 약 30초 정도 지나자 영화 속 장면처럼 하얀 안개가 걷히며 서서히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순간을 경험하니 눈 건강에 신경 쓰게 됐다. 평소에 문서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할 때가 많아서 눈이 침침했다. 때론 뻑뻑하고 눈물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 안과를 찾아 검사를 했다. 다행히 백내장은 아니었다. 백내장은 흔히 노화로 수정체에 이상이 생겨 혼탁이 오는 안질환이다. 보통 노인성 안질환으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특징이다. 백내장, 녹내장 등 노인성 안질환의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아직 노안이 올 연령대는 아니라며 안구건조증이 있다는 소견과 함께 인공눈물 처방을 받았다. 따라서 갑자기 눈에 문제가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먼저 찾는 게 좋다.

현대인에게 눈 주위가 뻑뻑해지는 눈 피로는 흔하다. 눈 피로의 흔한 3가지 원인을 살펴보자. 첫

째, 스마트폰, TV, 컴퓨터 사용으로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아 눈에 자극을 많이 주고 장시간 노출되면 눈을 건조하고 피로하게 만들기 쉽다. 둘째, 대기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공기가 건조하면 눈물을 빠르게 증발시킨다. 비슷한 예로 실내에서 온풍기를 오래 틀어도 눈을 뻑뻑하게 만든다.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 물질이 눈을 자극해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영향으로 눈물 생산량이 줄고 호르몬 영향으로 눈 건조 등 피로를 겪게 된다. 평소 눈을 자극하거나 유해한 상황을 멀리하고 휴식을 잘 취하는 게 눈 피로와 안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눈이 쉽게 뻑뻑하고 침침하다면 안륜근, 측두근, 후두하근 등 눈 피로에 관계되는 근육을 온찜질 또는 온열 마사지를 해보자. 따뜻한 열이 근육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눈 피로가 풀릴 것이다. 

Profile. 안병택

- 바디안 대표
-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겸임교수
- <매일통증> <4050 생활습관 리셋> 등

눈 피로에 제격인 온열 마사지법



① 안륜근 온열 마사지

안륜근(눈둘레근)은 눈 주위를 둘러싸는 근육이다. 양 손바닥을 펴고 나란히 모은다. 엄지를 펴고 나머지 손가락을 꺾지 않는다. 동그라미 표시 부분이 열이 발생하도록 빠르게 15~20회 비빈다. 손바닥 아래 마찰열이 생기면 눈에 갖다 대고 10회 반복한다.

② 측두근 마사지

측두근은 눈 통증, 두통, 치통을 유발하는 근육 중 하나다. 관자놀이에 양손의 검지, 중지, 약지 끝을 가볍게 댄다. 이때 이를 악물면 측두근 수축을 느낄 수 있다. 손끝을 원을 그리며 측두근을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특히 아픈 부위를 찾아 마사지하고 20회 반복한다.



③ 후두하근 마사지

후두하근은 후두골 아래 위치한 근육군으로 긴장되면 만성 두통 또는 눈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뒤통수뼈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후두용기)을 찾는다. 양손의 검지, 중지, 약지 끝을 후두용기 옆을 따라 가볍게 누르며 천천히 이동하며 마사지한다. 10회 반복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One-Point 경영컨설팅

‘수출 도전’ 실시 안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와 경험·역량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IBK기업은행의 One-Point 경영컨설팅을 찾아주세요.”

One-Point 컨설팅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컨설팅 주제를
세분화하여 즉시 실행 가능한 솔루션 제공

이달의 신규 테마



수출 도전

※수출프로세서의 첫 단계 극복 지원

1 시장 조사 및 타깃팅

2 계약 체결

3 물품 조달

4 운송 및 선적

5 대금 회수

WHERE?

목표시장 선정

WHOM?

잠재 바이어 발굴

HOW?

담당자 역량 강화

주요 내용

목표시장(국가) 선정

대상 수출 준비 기업, 진출 가능 국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업 등

내용 수출입통계, HS Code 등 분석하여 약 5~7개 유망 수출시장(국가) 도출 후 시장경험, 보유역량 등을 고려하여 목표국가 선정 및 추진방향 수립

해외 잠재 바이어 발굴 지원

대상 해외 거래처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등

내용 제품 및 고객 특성 등을 분석하고, 연관 국가/산업군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잠재 바이어 리스트 도출 및 거래 제안을 위한 준비사항도 안내

무역실무 기초교육

※수출 서류 작성 실습 포함

대상 담당자가 수출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기업 등

내용 수출 프로세스에 따른 무역 용어, 정형거래조건, 대금결제 등 무역 실무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수출 필수서류 작성 실습도 지원

수행 방법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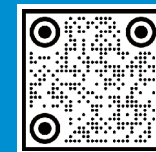
거래 영업점을 통한 신청

IBK가 바꾼 삶.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나는 지금,
은행에서 창업 중

언제 어디서나
IBK 비대면채널에서
사업자등록부터
은행 거래까지
가능한 세상,
현실이 되다



이제, 사업의 시작을 쉽고 편하게
IBK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IBK 기업은행